

# 아스피린, 뇌기능 노화 억제효과

## 인지기능 저하속도 지연 입증 ... 위출혈 없으면 실보다 득이 커

아스피린(Aspirin)이 뇌기능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 대학 의과대학의 실케 케른(Silke Kern) 박사는 저단위(75-160mg)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진행되는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0월26일 보도했다.

70-92세 여성 약 700명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복용 여부를 조사하고 5년 후 기억력, 언어유창성(verbal fluency) 등에 관한 인지기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아스피린의 뇌기능 노화 억제 효과 사실이 확인됐다고 케른 박사는 밝혔다.

저단위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그룹은 아스피린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그룹에 비해 나이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가 현저히 낮고 속도도 상당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계속해 아스피린을 복용한 66명은 일부 인지기능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지기능이란 뇌에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찾아 사용하는 모든 행위, 즉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아스피린 이외에 다른 NSAID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마이애미 대학 의과대학 알츠하이머병 치료실장 리처드 아이삭슨 박사는 심장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은 것이 보통이라면서 저단위 아스피린은 규칙적 운동, 건전한 식습관과 함께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리처드 박사는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는 환자,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MCI) 환자, 경증 내지는 중증(中症) 치매환자에게 81mg 베이비 아스피린을 권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스피린은 위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위출혈 병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구결과는 British Medical Journal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29>